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五)

申南澈

이제 韓氏의 所論을 보건대 『生存의 批判』에서 出發한 『哲學 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는 『大概 事物의 『有하여야 할 것』보다 只今 『有한 것』을 알기에 努力하는』 探偵者 (活動 寫眞의 惡漢을 追跡하는 探偵者!)로서의 『哲學의 定義와 實在探究의 形式』을 넘우도 大膽하게 哲學의 根本 義와 그것의 發生된 根據도 究明함이 업시 自身의 造詣를 十全으로 公布함에 對하여야는 그 勇猛에 感服하는 바이나 그러나 비록 僅少한 紙面의 制限 下이라 할지언정 過大히 簡單하고 생각한 餘他가 업시 써나린 俗流化에는 事實로 苦笑를 禁할 수 업는 것이다. 韓氏에게는 哲學은 『大體로 生存의 批判』이었다. 오직 上述한 바와 가튼 通俗的 意味에 잇서의 素朴한 生存의 批判에 긋치고 마렸다. 그러나 『生存』에 對한 反省이 잇스면 모르겟스나 生存其自體에 對하여야는 一切의 吟味를 拒否하고 苟且하게 『生存의 立脚地』 더욱히 『現代』라는 修飾語가 붙은 그것을 가지고 立論으로써 結定되지 안흔 『生存』을 批判하러 드렸스니 그 批判이 肯□에 該當치 안흔 것은 明若觀火이라고 하지 못할 것일까?

輕率히 『生存』을 批判(하물며 批判!)하라고든 氏가 哲學의 特自性和 □微□性を 該□하고 그것에 對한 最大의 迫害라고 할 수 잇슬 俗流化를 結果하고 마렸다. 나는 스스로 생각건대 哲學과 生存을 韓氏가 論說하는 바와 가튼 平凡하고 淺薄한 것은 아닌 줄 밋는다. 나 自身으로도 韓氏의 그와 가튼 『哲學의 定礎』와 『生存의 批判』은 할 수 잇슬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넌 쟈쓰이다. 哲學의 一般化는 社會 一般의 哲學的 要求가 眞靜하고 激烈한 때에만 그 當然의 歸結로서 社會化 民衆化를 待望 할 수 잇스나 어떤 一 個人의 語不成說의 哲學的 努力으로는 期及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에 結果되는 것은 往往히 俗流化 - 墮落 以外에는 남는 것이 업는 것이다. 現今의 段階에 잇서서 大衆의 理論에의 『에로스』가 旺盛하여가며 哲學的 欲求가 熱烈한 由來를 探索하여 볼 때 적어도 哲學하는 사람은 그것의 所在와 根據를 看取

할 것이다. 다시 哲學은 그의 端緒에서부터 韓氏의 發見과 가튼 慢然한 驚異를 驚異하는 것도 아니고 單只 知慧를 蓄積하는 것도 아니고 그 愛知(philosophia)는 新境地에의 突入이었고 存在에의 肉이며 목은 秩序에의 □□이였다. 그것은 哲學史에 나타나는 人物과 學說을 記憶하는 것도 아니고 認識論的 思想의 理論的 關係를 짜지는 것만을 能事로 하지 안혔고 또 하지 안으면 하지 안을 것이다. 그럼으로 眞正한 哲學的 精神은 今日에 있어서도 依然히 反抗的 精神에 充滿하여 잇는 것이다. 不斷의 進行이고 鬪爭이다. 그것은 街頭的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의 街頭的에서 훨씬 前面에로 進出한 街頭的이다. 그것은 『實在를 探求』하려 深淵으로 『航海』하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 現實의 第一 義的 把握을 意識하고 잇는 것이다. 우에서 wie의 解釋을 論할 새 한 것 가티 『質的, 量的/一元論, 多元論) 등의 分類表에도 조금도 關與하지 안는다.